노후차량 대규모 감세정책 희비

소비자 '웃고' 지자체 '울고'

연말까지 광주시·전남도 340억 세수감소 예상

정부의 노후차량 세제지원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방재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가 감세 정책 시행에 따른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 없이 제도를 시행해 광주시는 올해 140억원, 전남도도 200억원 이상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노후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한 2천47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70%를 감면한 결과 16억2천500만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감면액은 차량 대당 최고 98만원까지였다. 전남도도 같은달 면세조치로 19억900만원의 손실이 빚어졌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올 말까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모두 140억원대의 세수 결손액이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결손액은 6월 현재 광주시의 취·등록세 세제지원 대상 차량 15만6천대 가운데 10%인 1만5천600대의 소유자가 차를 팔고 신차를 등록할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들은 재정 손실분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안건으로 채택, 정부에 대책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감세정책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999년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차량으로 올해 4월12일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한다.

/윤영기·최권일기자 penfoot@

영·호남화합 한마음 대회 11일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영호남 한마음 성시화 및 국민통합 결의대회'에 참석한 영호남 기관단체장·기독교지도자 3천여명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영호남 상생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광엑스포 마스코트 '이달의 등록 저작물' 선정

'2009광주세계光엑스포'(10월9일~11월5일)의 공식 마스코트인 레이(RAY), 그리미(GREAM·사진), 빔이(BEAM)가 저작권위원회의 '이달의 등록 저작물'로 선정됐다.

저작권위원회는 정기간행물 '저작권문화' 6월호에서 이들 캐릭터를 지적재산권(캐릭터) 부문 이달의 등록 저작물로 선정, 이미지를 수록했다. 세 개의 캐릭터는 각각 태양, 별과 달을 상징하며 이들 마스코트가 모이면 광엑스포의 주제인 '미래를 켜는 빛'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재)광주세계광엑스포는 "이들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공식 마스코트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행사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전남 자전거도로 총 42㎞ 조성

광주 서구~나주시 연결노선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에 모두 42㎞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가 조성된다.

11일 광주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시범지역으로 16개 시·도의 21곳을 선정해 올해 240억원을 투입, 60㎞의 자전거길을 만든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 개설될 노선은 모두 8㎞에 달한다.

광주·전남 자전거길은 도심권 생활형 노선으로 채택됐으며, 대상 구간은 광주 서구~나주시 (23㎞),목포 연동광장~대불국가산단(12㎞), 신가교~나주향교(7㎞) 노선이다. 행안부는 내년 착수예정인 신가교~나주향교를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올해 착공키로 하고 15억여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이들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시·도,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광주 서구~나주시 구간은 4㎞, 신가교~나주향교 간은 4㎞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우박 피해' 전남 등 농가에 380억 보험금

농협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 사이 전남·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5천200여곳에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약 38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11일 밝혔다.

농협의 현지조사 결과 열매를 맺은 과실 가운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과실의 비율은 나주 지역이 70%, 경북 청송·안동은 약 6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가입금액(지급 보험금 상한) 범위 안에서 자기 부담금(가입금액의 20%)을 제외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미치겠다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인력양성 기관

전남대·조선대·목포대 선정

전남대와 조선대, 목포대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지식경제부 주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계획과 연계, 지역 선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우수인재 양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11일 호남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 기관으로 전남대(친환경부품 소재-광기술)와 조선대(친환경부품 소재- 자동차), 목포대(신재생에너지-해상풍력), 전북대(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4개 대학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매년 50억원 씩 5년 동안 총 250억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대는 광기술 기반 융합조선기자재 부품 및 LED조명·시스템 개발 등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 육성사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조선대는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클린 디젤, 연료전지, 모터 등 친환경 자동차 분야의 부품 개발·설계기술·소재 개발·광 응용 분야의 중견기술인력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목포대는 해상풍력·태양광 에너지 관련 시스템 기술, 에너지 기술 분야의 실무형 우수 전문인력을 연간 180명 총 900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진도 동거차도 암석 천연기념물 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관계전문가의 실태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진도 동거차도 유문암질 응회암과 규질 구상 페페라이트' 암석지대(6만3천450㎡·사진)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념물이 소재한 거차도는 진도에서 약 25㎞ 떨어진 곳으로, 육지에서 제주도를 갈 때마다 거쳐가는 섬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얻게 됐다고 전한다. 이곳 암석은 지각을 뚫고 여러 갈래의 암맥 형태로 상승하던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에 쌓인 화산재와 혼합해 조성된 페페라이트(peperite)로 추정된다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페페라이트란 퇴적 작용과 화성 활동(특히 마그마의 관입이나 용암의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종종 만들어져 과거 지질 작용의 성격과 시기의 해석에 큰 도움을 주는 암석이다.

이번 동(東)거차도 응회암과 페페라이트는 규질 암맥이 둥근 단괴 모양으로 떨어져 나온 모습이며, 페페라이트로서 일반적인 중요성을 지님은 물론, 규질 페페라이트의 형성과정을 해석하는 데도 중요한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영광군 공유수면 분양 관련 대행사에 수수료 과다 지급 감사원 지적

감사원은 11일 "영광군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타당성 분석 등을 잘못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영광군은 현재 분양률(27%)을 기준으로 할 때 33억원의 수수료를 분양대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매립지를 분양하지 않고) 전액 대물변제하는 경우보다도 12억4천500만원의 손해가 되는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영광군 의회의 감사청구 요청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를 영광군에 통보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신대봉 (340822-1621615)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느단 144
공 고 인:이영애, 신성규, 신성민, 신성희
한정승인수리일:2009. 6. 9
공고기간:2009. 6. 12~2009. 8. 11
연 락 처:광주 광산구 송정동 1397
신 성 민 (010-4533-9988)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서길임 (340925-2641717)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813
공 고 인:이상옥, 이선자, 이미정, 이상철
한정승인수리일:2009. 6. 5
공고기간:2009. 6. 12~2009. 8. 11
연 락 처: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00-44
이 선 자 (010-3116-7251)

주주 여러분께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회사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목 적 : 2009회계연도(제42기) 중간배당 수령주주 확정
2. 기준일 : 2009년 6월 30일
3.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009년 6월 12일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정 준 양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감 정 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강대열 (340507-1646215)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9느단 61
공 고 인:윤치빈,윤치인,윤소림,송성현,송정현,송정엽,강진미,강혜미,강석호,김원필,김원일,강신비,강혜용,김경빈,김현빈
한정승인수리일:2009. 6. 8
공고기간:2009. 6. 12~2009. 8. 11
연 락 처: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55-8 2동 301호
윤 치 민 (010-5017-2921)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최효숙 (681013-2650418)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639
공 고 인:강영택,강나례,강병현
한정승인수리일:2009. 6. 5
공고기간:2009. 6. 12~2009. 8. 11
연 락 처:광주 광산구 월곡동 614-1 한성아파트 103-506
강 영 택(010-6680-6810)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2009년 06월 01일 개최한 주식회사 수연중공업(대표이사 김충선) (갑)과 주식회사 수연기공(대표이사 범진규) (을)은 각각 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 527조의 5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구 주권을 가진 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12일
"갑" 주식회사 수연중공업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29-7
대표이사 김 충 선
"을" 주식회사 수연기공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547-2
대표이사 범 진 규